



삼성 '갤럭시 북 S'

'LG 그램 17'

에이서 '아스파이어 5'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B9'

HP '프로북 455 G7'

집콕에 온라인 강의·재택근무까지... 코로나19 반사효과

초경량·고사양 앞세운 노트북 '힐힐'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등으로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트북 시장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22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1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 규모는 86만 5542대로 전년 동기 86만 5996대보다 0.1% 소폭 감소했다. 같은 시기 글로벌 노트북 시장 규모가 3664만 6534대에서 3324만 2342대로 6.3% 줄고, 미국은 891만 6575대에서 810만 3914대로 9.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이다.

이런 흐름속 PC 제조사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며 노트북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인텔 최신 칩셋을 탑재한 '갤럭시 북 S'를 다음 달 3일 공식 출시한다. 13.3형 디스플레이에 LTE 이동통신을 지원하고, 11.8mm의 얇은 두께와 950g의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USB-C 타입 충전기로 간편한 노트북 충전도 가능하다. 색상은 머큐리 그레이, 얼씨골드로 출시되며 가격은 사양에 따라 113만원부터 146만 5000원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2020년형 'LG 그램 17'으로 대화면 노트북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2018년 처음 등장한 LG 그램 17은 지난해 'LG 그램' 국내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노트북 시장도 대화면 노트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트북 판매량 가운데 15인치 이상 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PC 제조사들 잇따라 신제품 출시 대화면 노트북, 전체 판매량 70%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성능 강조

LG 그램 17은 17형의 대화면임에도 무게가 1.35kg이다. 인텔 10세대 프로세서 아이스레이크를 탑재했으며, 그래픽 성능이 기존 대비 약 2배 향상돼 4K 영상, 사진, 게임 등을 부드럽게 보여준다. 출고가는 214만원이다.

글로벌 PC 업체도 꾸준히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에이서는 지난 15일 노트북 '아스파이어 5'를 국내에 출시했다. 아스파이

어 5는 15.6형의 화면에 AMD 라이젠 3세대 르누아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무게는 약 1.7kg이다. 실버와 블랙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윈도가 탑재되지 않은 모델은 62만 9000원, 윈도 탑재 모델은 79만 9000원이다.

에이수스는 지난달 가벼운 무게와 14.9mm 두께에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엑스퍼트북 B9를 출시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 무게는 870g과 990g으로 나뉜다. 94%의 스크린 대 바디 비율로 14인치 디스플레이를 13인치 바디에 구현했다. 가격은 990g 기본 모델의 경우 147만 9000원부터 시작한다.

HP는 최근 AMD 라이젠 3세대 르누아르 프로세서를 탑재한 기업용 노트북 프로북 2종을 출시했다. 내구성과 보안성을 높여 업무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초경량, 대화면, 최신 프로세서 등을 강조한 노트북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한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 "위기극복·책임경영 실천"



1000주 매입, 주당 단가 6만 8000원
"경쟁력 있는 에너지 화학 기업 조성"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

에쓰오일의 알 카타니 CEO가 자사주 매입으로 책임 경영에 나섰다.

에쓰오일은 22일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에쓰오일 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당 매입단가는 취득일인 지난 19일 기준 약 6만 8000원이다. 지난 해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1주년을 맞이한 사우디 출신의 알 카타니 CEO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알 카타니 CEO가 사재를 들여

회사 주식 매입에 나선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알 카타니 CEO는 철저한 위기 관리,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비전 2025를 달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에너지 화학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며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게임 속 캐릭터와 만남... '점프AR' 눈길

'페이커' 점프 AR영상, 조회수 30만

T1 '페이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점프AR 동영상'이 4일 만에 조회수 30만명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점프 AR' 앱 내에 LoL '야소' 등이 등장하는 AR기반 사진·동영상 촬영 메뉴를 신설하고, 롤(LoL) 게임을 재연한 소셜물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T1 '페이커'는 최근 '아칼리'를 만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점프AR 동영상을 점프AR 오픈갤러리와 SNS에 올려 수십만명이 찾아봤다. '야소'와 '아칼리'는 인기 게임 롤의 게임 캐릭터다.

이 동영상은 약 7초 분량으로 증강현실로 구현된 '아칼리'의 동작과 음성 페이커가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콘텐



T1 페이커는 최근 LoL 게임 캐릭터인 '아칼리'를 만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점프AR' 기반 동영상을 점프AR 오픈갤러리와 SNS에 올려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SK텔레콤

츠다. SNS에 올린 지 4일만에 조회수 30만, '좋아요' 1만개가 달렸다.

/김나인 기자 silkini@

"인덕션도 디자인시대" 삼성전자, '올 인덕션' 출시

듀얼 글라스·비스포크 색상 적용

삼성전자 인덕션도 비스포크 색상을 입는다.

삼성전자는 22일 전기레인지 '올 인덕션'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인덕션은 상판과 조작부에 서로 다른 색상·재질을 적용한 듀얼 글라스 디자인과 비스포크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상판은 화이트 색상의 세라믹 글라스가 적용돼 밝은 색상의 싱크대에도 깔끔하게 어울리며, 조작부에는 상판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색상을 적용한 '올 인덕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과 조합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클린 화이트, 클린 그레이, 클린 핑

크의 3가지 색상을 도입했다.

4면 테두리에 메탈 프레임 적용해 충격으로 인한 측면 깨짐을 방지하고, 각 화구를 직관적으로 조작 가능한 개별 슬라이드 방식의 패널, 화이트 색상의 심플한 LED 디스플레이로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3개 화구에 모두 고화력 부스터를 적용해 많은 양의 음식도 빠른 시간 내 가열할 수 있다. 가장 큰 화구의 경우 부스터 기능 사용 시 출력이 최대 3000W에 이른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제철, 개인공간서 전문수업 자유수강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홈런'

현대제철이 6월부터 도입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홈런(Home Learn)'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제철이 새롭게 도입한 '홈런'은 서버에 저장된 온라인 강의를 다운받아 수동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집체 교육으로 진행되던 AI·빅데이터 이카데



현대제철 직원이 홈런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미, 제조 공정 등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수업을 사무실이 아닌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용 기자 juk@

SK네트웍스

'민트 ATM' 광고 공개

SK네트웍스가 중고폰 ATM '민트' 알리기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최근 민트ATM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SNS, 온라인 TV 등 채널로 송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트ATM은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중고폰 ATM이다. 기기 안에 휴대폰을 넣으면 기능 점검과 시세 조회는 물론 판매 및 기부까지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영상광고에는 배우 안재홍을 모델로 기용했다.

/김재용 기자

'U+프로야구·골프·아이돌 라이브' 무료 개방

LGU+ 전용 앱 타사 이용자도 사용

LG유플러스는 프로야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U+프로야구'와 골프중계 서비스 'U+골프', 아이돌 덕후 앱 'U+아이돌라이브'를 타사 이용자에게도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즌 U+프로야구는 기존 '주요 장면 다시보기', '포지션별 영상' 기능에 방구석 응원에 유용한 실시간 채팅, 게임, 경기 중 응원단을 보며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응원단캡' 기능을 추가했다.

U+골프는 KPGA 중계 중 해설진과 실시간 소통하며 감상하는 인기선수 독점중계 기능을 제공 중이다. 이번 시즌에는 고객이 스윙영상을 촬영해 신청하면 KPGA 중계 중 해설진이



LG유플러스 모델이 U+프로야구, U+골프, U+아이돌라이브 서비스 전국민 무료 개방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원격 레슨해주는 스윙영상레슨 기능을 추가했다.

U+아이돌라이브는 Z세대를 위한 직캠 영상이 제공된다. 강원도 속초로 떠난 아이즈원의 먹방 '아이즈원의 잇칭(Eat-ing) 트립' 등 인기 아이돌의 일상 모습을 담은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다. /김나인 기자